

## <토론문>

백낙구(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)

- 환황해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도청을 서해안지역으로 이전하였고,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(도로, 철도, 항만 등)을 확충하는 시점에서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미래를 고민하는 학술포럼은 시기적절함.
- 환황해권 지역은 아시아의 역설(Asia paradox)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,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뿐 아니라 지방입법기관차원의 초국경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함
  - 아시아 국가간 경제, 문화적 상호의존관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나, 역사문제, 영토문제 등으로 갈등은 심화되고 있음(아시아의 역설).
  - 환황해권내 초국경 교류는 경제·문화·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나, 여전히 특정지역과 도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  - 환황해권 지방입법기관간에도 현재 “동북아시아지역 지방입법기관 포럼”의 형태로 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나, 지방입법기관의 고유기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.
- 과거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분명 충청남도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, 현재 중국의 저성장기조에 대응하여 충남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충남도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, 다음과 같은 아젠다(agenda)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임.
  - 서산해미 공항 민항기 취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백제문화유산·교육·의료관광 등과 연계한 중국 및 일본관광객 충남유치를 추진
  - 서산-룡안(위해)간 국제여객선 취항을 계기로 서산항과 보령신항을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고, 크루즈 항만 등 국제항만으로 육성
  - 중국의 내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내 온라인·오프라인 유통망을 구축하고, 중국기업과의 거래처 다각화를 통해 내수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방안 모색
  - 중국유학생들이 충남도내 각 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는바, 이들을 충청남도 민간홍보대사로 육성하는 방안
  - 중국의 동해안지역의 산업화로 인한 인구집중으로 해양오염이 심화되고 있고,

충남 역시 황해를 공유하고 있어 황해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

- 백제문화유적지구가 UNESCO세계 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계기로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모색
- 중국 허베이성과 일본 구마코토현 등 충남의 자매결연 지역과 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협력 방안모색

□ 향후, 충남 서해안에 위치한 자치단체들은 환황해권 초국경 교류협력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, 구체적인 교류 및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.

- 충남 서해안지역은 해양과 접해있어 해양을 통한 환황해권 교류협력이 가능한 환경이나, 중국이나 일본과 교류할 수 있는 거점항만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함
- 반면, 수려한 자연자원과 수산물, 국제적인 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어 숙박시설 등 관광수용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면 중국과 일본관광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차원의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.

□ 충남도와 기초자치단체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환황해권 초국경 교류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.

- 중국은 남한의 100배 넓이, 30배 인구를 가진 대국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음.
- 반면, 충남의 인구 210만, 기초자치단체들은 3만에서 60만 정도의 규모의 인구규모로만 보면 중국의 산둥성 웨이하이시시(威海市)보다 적은 규모임.
- 따라서, 중국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기 보다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하되, 양자보다는 다자간 교류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임.